축산물품질평가원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6. 11. 23.(월)	배포 일시	2026. 11. 23.(월)
담당 부서	품질평가처	책임자	처 장 안동호 (044-410-7051)
		담당자	과 장 강희진 (044-410-7056)

등급 계란 크기, 이제 '2XL~S'로 확인하세요! 22일부터 전면 적용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자 의견 반영한 계란 중량규격 명칭으로 직관적 정보 제공 강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22일부터 모든 등급 계란의 중량규격 명칭이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전면 변경되어 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개선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 명칭으로는 계란 크기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난 5월 21일「축산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지난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11월 2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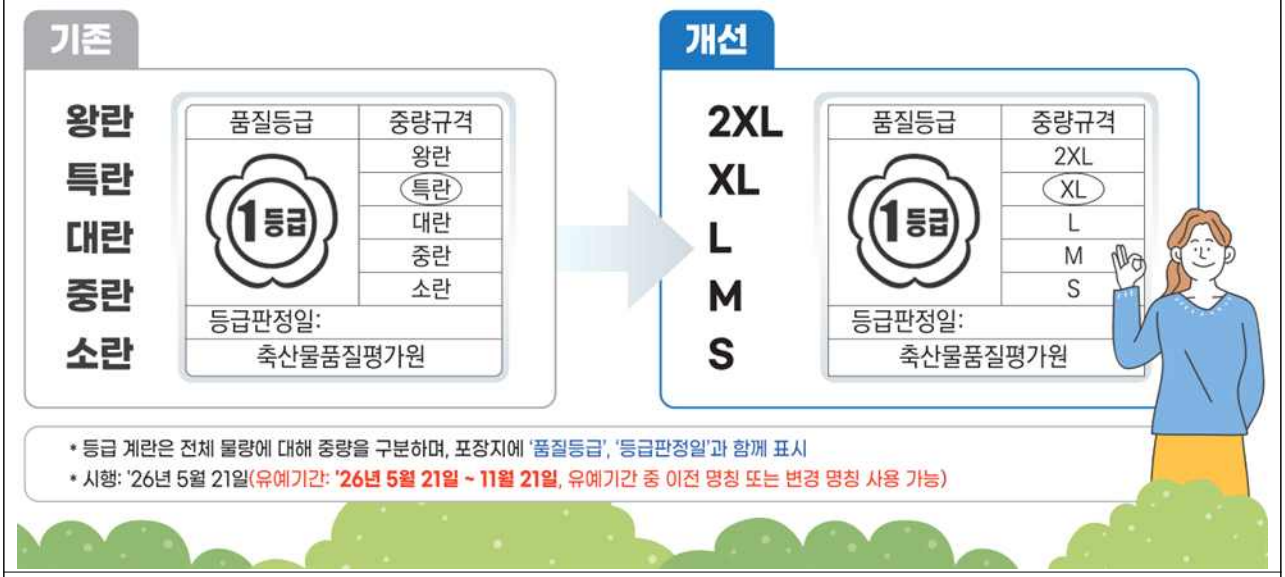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포장재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 9월에는 GS리테일과 함께 '계란 선택의 기준'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다각도로 전개했다.

아울러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모든 등급 계란에 의무적으로 새 명칭을 표시해야 하는 22일부터는 제도 전면 시행에 맞춰 소비자 접점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유통사 컬리와 협업해 '등급 계란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새롭게 바뀐

중량규격 명칭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등급 계란 할인 판매와 다양한 이벤트들도 추가해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등급 계란 중량규격 명칭 변경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표시 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의류 사이즈처럼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고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를 개선하고 투명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 **관련 화보/자료**



등급 계란 중량규격 명칭 개선 내용 요약



변경된 등급 계란 중량규격 명칭이 표시된 제품 사진